



7월 1일부터 8일까지 갤러리 생각상자에서 열리는 '마중물' 전.

'2021 마중물' 전, 1~8일 갤러리 생각상자 작품 크기 관계없이 균일가...32명 작가 작품 72점

“30만원이면 나도 초보 컬렉터”

‘동행’

광주전통민화협회
1~7일 무등갤러리



전미란 작 '양귀비'

민화에는 오랜 세월 이어져온 우리의 삶과 이야기가 담겨 있다. 집안을 장식하는 데 쓰인 화조영모도, 어해도, 좌도도, 십장생도, 산수도, 풍속도, 고사도, 문자도, 책가도 등의 그림은 아름다운 오방색의 색채가 어우러지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다. 최근에는 민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옛 것의 재현과 함께 새롭게 창작된 작품들도 꾸준히 만날 수 있다.

광주전통민화협회(회장 전미란) 제 10회 회원전이 1일부터 7일까지 광주예술의 거리 무등갤러리에서 열린다.

한국미협 민화분과 이사이자 백야전통민화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민화작가 성혜숙 작가에게 가르침을 받은 회원들의 모임인 광주전통민화협회는 이번 전시에서 '동행'을 주제로 광주, 강진, 순천에서 활동하는 32명의 작가 작품 50여 점을 선보인다.

출품작은 책가도, 화조도, 장생도, 연화도, 운룡도, 문자도 등 다양하며 각자의 개성이 담긴 새로운 느낌의 창작 민화도 전시해 민화의 또 다른 방향성도 제시한다.

회원 중 전미란·김수현·권은근·안미현·이혜경 회원은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회원 대부분이 장려상과 특선 등을 수상하는 등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전시 참여작가는 권은근·김인영·박귀영·박현숙·인미현·양영식·오영현·유다희 작가 등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작품 활동에 매진하는 작가와 그림을 소장하고 싶은 이들의 ‘인연’을 만들어 드리면 어떨까.”

주흥 갤러리 생각상자(광주시 동구 남문로 628) 관장이 코로나 19가 한창이던 지난해부터 줄곧 했던 생각이다. 작가들에게는 창작할 수 있는 힘을 주고, 한번도 그림을 구입해 보지 못한 이들에게 ‘작품 소장하는 즐거움’을 전해주면 어떨까하는 아이디어를 지인들과 나누며 전시를 기획했다.

이 때 생각난 게 ‘마중물’이었다. 막혀버린 펌프에서 다시 물이 나오게 해주는 게 바로 몇 바가지의 ‘마중물’임을 떠올리며 작가와 구매자가 서로 마중물이 되는 그린 소품전을 준비했다.

‘갤러리 생각상자 2021 마중물’전이 1일부터 8일까지 열린다. 전시에는 고근호·류현자·박유자·조문현·주흥·장용림·권예슬·김다인·배다인·하도훈·하승안·전하은·김하솔·김유나 작가 등 청년부터 중견 작가까지 모두 38명의 작가가 참여해 서양화, 한국화, 조각 등 72점의 작품을 전시한다.

작품은 크기와 관계없이 모두 30만원 균일가로 책정했다. 작품 주제와 스타일도 될 수 있으면 미술관이나 갤러리 보다는 ‘우리 집’에 걸어두기 좋은 작품으로 요청했다. 아무래도 처음 작품을 구입하는 이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다.

이번 전시는 여러 사람의 마음이 합쳐졌다. 사실, 작가들에게 30만원 균일가나 작품 주제를 요청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작가들도 새로운 콜렉터들과의 만남에 마음을 열었고, 주최측도 예비 콜렉터들을 적극 확보하는 등 발로 뛰었다.

무엇보다 한번도 그림을 사 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림을 사 보는 경험’을 제공하는 건 의미있는 일이다. 마음에 드는 ‘원화’를 직접 구입해 소장하는 기쁨을 알게 되면 ‘또 다른’ 구매로 이어지고, 좋아하는 작가를 응원하게 된다.

전시에는 마음 따뜻한 이들의 참여가 이어졌다. 갤러리 생각상자를 운영하는 조상권 종이와 사람들 대표가 전시공간과 액자비 전액을 지원했고 서동환 아트광주 가이드 대표는 도록 디자인을 재능기부했다.

갤러리 생각상자는 전시 결과에 따라 ‘마중물 전’을 연례 행사로 진행할 계획이며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진행할 수 있는 작가도 발굴하는 등 예술가들을 위한 기획을 계속할 생각이다.

주 흥 관장은 “참여작가들이 적은 금액에도 불구하고 좋은 그림들을 많이 내주셨다”며 “이번 전시가 작가들의 지속가능한 작업을 응원하고, 많은 이들이 그림을 사보는 경험을 하는 데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문의 010-6791-8052.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배우미 ‘나는 대면한다’



‘ACC 민주·인권·평화 UCC 공모전’ 대상

올해 ‘ACC 민주·인권·평화 UCC 공모전’ 대상에 배우미의 ‘나는 대면한다’(일반부), 새별역사동아리의 ‘1980년 파사로운 햇살이 비치는 어느 5월’(청소년부)이 선정됐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은 올해의 UCC 공모전 수상작 10편을 선정, 발표했다. 최 우수상은 BADIL의 ‘영원’(일반부), ANINA의 ‘할아버지 5·18이야기’(청소년부)가 차지했다.

심사위원들은 총평에서 “작품성이 더욱 높아지

새별역사동아리 ‘1980...’



고 깊이 있는 이야기가 전개되는 등 전년보다 많은 발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이들 수상작품들은 향후 ACC누리집·미디어월·누리소통망(SNS) 등 ACC가 운영하는 각종 매체를 통해 교육과 홍보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한편 ‘ACC 민주·인권·평화 공모전’은 5·18민주화운동의 가치와 민주·인권·평화 정신을 국내외에 확산하고 역사인식을 고취시키기고 지난 2018년 시작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광주일보 문화예술 매거진 7월호

예향



그린 힐링족 ‘도시농부가 자란다’ 등단 55년 한승원 작가 문학 인생

베란다에 앉아 ‘식물망’으로 힐링하기, 채소값 들썩일 때 파테크 하기, 옥상에서 키운 채소로 건강 샐러드 만들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녹색 치유’(Green Care)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아파트 베란다나 옥상에 텃밭을 조성해 화초나 농작물을 키우는 ‘도시농부’들이 늘고 있다.

광주일보가 발행하는 문화예술매거진 ‘예향’은 7월호 특집으로 ‘도시농부가 자란다’를 준비했다. 흙가드닝(집에서 식물기르기)과 흙파밍(집에서 농사짓기), 플랜테리어(식물을 활용한 인테리어)는 ‘집콕’ 시대에 위로와 힐링을 안겨준다. 베란다에서 레몬, 커피 키우기에 도전하고 있는 ‘식물 덕후’ 기자의 생생한 체험도 소개한다.

예향 초대석은 ‘달을 길는 작가’ 소설가 한승원을 만났다. “나는 시 한편, 소설 한편 쓰는 일을, 이 우주에 꽃 한 송이로써 장엄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한승원(82) 작가는 고향인 장흥 바닷가에 ‘해산도굴’을 짓고 자연친화적 삶 속에서 구도(求道)적인 글쓰기를 하고 있다. 등단 55년을 맞아 최근 자서전 ‘산돌 키우기’를 펴낸 작가의 문학인생과 작품세계에 대해 들었다.

예술과 관광, 맛을 찾아 길을 떠나는 ‘남도 오디세이 美路(미로미로)’가 새롭게 시작된다. 첫 여행지는 ‘빙그레 웃는 섬’ 완도다. 경관이 빼어난 청산도와 보길도, ‘해상왕’ 장보고와 ·고산 윤선도 역사유적, 완도수목원과 신지 명사십리해수욕장은 완도만의 힐링을 제공한다.

지역 특산물을 소개하는 ‘현지의 맛, 로컬브랜드’는 모듬해초로 세계시장을 공략중인 세계로수산과 전복차우더·전복감바스로 젊은이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완도다 어업회사법인을 방문했다. 장

보고뿔과 해초라떼로 완도의 핫플레이스가 된 ‘카페 달스윗’도 찾아간다.

“클릭, 문화현장”은 ‘하의도에서 오일까지’전이 열리고 있는 신안 1004섬 분재공원의 저널노을미술관으로 안내한다. 신안군 신의도에는 2023년까지 일제 강점기 시절 수탈의 아픔을 겪은 하의도의 역사와 동아시아의 미래를 담은 미술관이 건립된다. 이번 전시는 미술관 건립의 중간보고라고 할 수 있다.

“문화를 품은 건축물”은 국내 유일 공립 미디어아트 미술관인 백남준아트센터를 소개한다. 건물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미디어캔버스를 형성화 한 듯한 아트센터는 자연과 인공의 하모니를 담은 설계로 주목받았다.

“문화바이러스 퍼뜨리는 예술단체”는 뛰어난 기량의 연주자들로 이뤄진 금관 앙상블 ‘Jolly Brass Sound’를 소개한다. 2대의 트럼펫과 호른, 트롬본, 튜바를 연주하는 5명의 멤버들은 광주·전남 문화 소외 지역을 찾다니며 화려하면서도 웅장한 금관악기의 매력을 전파하고 있다.

“나무를 심고, 집을 짓는 것”을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독일 남자 안뜰 솔츠와 정유진 부부가 2년간 궁리해서 지은 주택을 방문한 ‘살고 싶은 집, 이야기가 담긴 집’도 흥미롭다. ‘세계문화유산, 한국의 산사를 가다’ 두 번째는 해남의 명산 두륜산 자락 천년가람 대흥사로 떠난다.

광주와 부에노스아이레스 두 도시의 아픈 역사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좋은 빛, 좋은 공기’ 임흥순 감독과 지명타자로 나와 타격 잠재력 터진 KIA 타이거즈 포수 이정훈 선수와의 인터뷰도 읽을거리다.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마임공작소 판, 3일 ‘웃음을...잠깐만’ 공연

마임공작소판(대표 고재경)이 3일 광주일맥원에서 명화와 함께하는 공연을 선보인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21 신나는 예술여행’ 후원으로 기획된 이번 공연의 제목은 ‘웃음을 자아내는 그림이야기, 잠깐만’(사진)으로 마임과 무용, 미술 장르가 결합된 작품이다.

자라나는 세대에 필요한 예술적 감수성을 풍부하게 채워줄 수 있는 마임·년버벌 연극으로 모네 ‘양산을 쓴 여인’, 밀레 ‘이삭줍기’, 클림트 ‘여성의 세 시기’, 몽크 ‘절규’, 고흐 ‘붕대를 감고 파이프를 문 자화상’ 등 명작에 관한 스토리를 배우들의 몸짓과 관객들의 참여로 만날 수 있다.

한편, 마임공작소 판은 마임과 무용, 미술 등장



르 간의 협업을 통한 다양한 변주로 연극예술의 다양성을 구축하고 있다. 문의 010-6377-0324.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